

오하구로(お歯黒)에 관한 연구*

김 현 정** *

(e-mail: sirayuki@nuch.ac.kr)

目 次

1. 서론
2. 오하구로의 변천사
3. 오하구로의 원료와 도구
4. 결론

1. 서론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웃을 때 가지런한 치열과 하얗게 빛나는 치아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사람의 시선이 가는 곳이며, 눈 다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 화장을 하고 피부를 가꾸는 것만큼이나, 치아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의 미의식은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누구나 흰 치아를 선호하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것이 중요한 화장의 일부였던 시기가 천 년 이상이나 된다.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유행했던 적이 없는, 일본의 독특한 풍습이다. 화장 풍습은 기원이나 기본 틀이 어느 나라든지 비슷한데, 다른 나라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오하구로(お歯黒)라고 하는,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화장법이라고 하겠다. 이 풍습은 고대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시작되어 메이지(明治)시대(1868년- 1912년) 초기까지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되어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교수, 일본고전문학 및 고대 민속학 전공

행해지던 풍습이었다.

또한 오히구로가 여성의 화장법으로 정착됨으로서 검은 이빨이 아름답다는 독특한 미의식도 여기에 동반되어 사람들의 사상 속에 완전히 자리잡게 된다. 이런 사실은 일본의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나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고쇼쿠고닌은나(好色五人女)』 등 각 시대의 고전의 문헌들에 그대로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천년 이상의 오랜 세월동안 화장문화의 일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자들과 함께 해왔던 이 오히구로라고 하는 일본의 독특한 풍습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오히구로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이미 민속학이나 문학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여성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화장문화의 일부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화장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폴라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일본의 화장-도구와 마음의 모양-(日本の化粧 -道具と心模様-)』¹⁾, 『부인의 몸가짐에 관한 이야기-에도시대의 화장도구-(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²⁾ 등의 책에서 오히구로에 대한 연구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또 『에도미인의 화장술(江戸美人の化粧術)』³⁾, 『얼굴의 문화사(顔の文化誌)』⁴⁾, 『화장의 문화사(化粧の文化史)』⁵⁾ 등에서 화장문화의 일부로 오히구로가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お歯黒」の研究』라고 하여 오히구로만을 다룬 단행본도 출간되었다.⁶⁾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화장문화나 화장의 역사에 관련된 논문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구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본과의 화장문화 비교연구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히구로만을 주제로 하여 오히구로가 일본의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문헌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살펴보고, 오히구로를 위한 도구와 재료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그 실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2. 오히구로의 변천사

중국의 『시경(詩經)』에 보면 제장공(齊莊公)의 딸 장강(莊姜)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 이빨에 대해 표현한 부분이 있다.

1)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90) 『日本の化粧 -道具と心模様-』, ポーラ文化研究所
 2)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3) 陶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講談社
 4) 村沢博人(2007) 『顔の文化誌』, 講談社
 5) 樋口清之(1982) 『化粧の文化史』, 国際商業出版
 6) 原三正(2005) 『「お歯黒」の研究』, 人間の科学新社

手如柔荑 膚如凝脂

(손은 부드러운 띠의 어린 싹과 같고, 살결은 기름처럼 윤이 난다)

頰如螭鬚 齒如瓠犀

(목덜미는 하얗고 긴 나무굼벵이 같고, 가지런한 흰 이는 박씨와도 같구나)⁷⁾

장강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미인의 대명사처럼 인용되는 여자이다. 여기서 보면 박씨와도 같은 가지런한 하얀 이빨이 아름다운 이빨로 묘사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비교문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비교문학자인 장경(張競)은 『미녀란 무엇인가(美女とは何か)』란 책 속의 ‘일중미인의 문화사’에서 일본의 오하구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빨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심미관은 크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⁸⁾ 중국 역시 긴 역사 속에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은 이빨을 아름답게 여기고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유행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런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흰 이빨을 미인의 조건으로 여기는 미적 감각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 쓰인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춘향을 처음 대면하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한 장면이 다음과 같다.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며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⁹⁾

여기서도 보면 ‘흰 치아 붉은 입술’로 춘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이빨, 중국에서도 박씨와도 같은 흰 이빨이 미인의 형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검은 이빨이 아름답다는 미적 감각이나 이빨을 검게 만드는 화장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검게 물들이는 화장법, 즉 오하구로라고 하는 독특한 풍습은 중국이나 한국, 기타 나라들에서는 보기 힘든 일본의 독특한 화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오하구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상세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日本風俗史事典』에 따르면 오하구로는 한자를 ‘御齒黒’ 또는 ‘鉄漿’으로 쓰며, 남방의 여러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있는 점과 일찍이 말레이시아 반도 등에서도 이 풍습을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남방전래설이 유력하다.¹⁰⁾

7) 『시경(詩經)』 중 ‘위풍(衛風)’의 ‘석인(碩人)’

8) 張競(2007) 『日中美人の文化史』 『美女とは何か』, 角川ソフィア文庫, p.37

9) 송성욱 편(2004) 『춘향전』, 민음사, p.31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조문(繩文)시대의 고분에서 발굴된 사람의 뼈나 하나와(埴輪-토우)등에 오하구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이런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시작되어 헤이안(平安)시대(794-1192년)에는 이미 이 오하구로의 풍습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헤이안시대에는 서민보다는 귀족이 중심이 되어 유행했었고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분을 바르고 이를 검게 물들이는 화장을 했었다.

그 때문에 헤이안시대의 각종 문헌 등에서 오하구로에 관해 쉽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의 대표적인 고전작품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여러 기록을 보면 ‘하구로메(齒ぐろめ)’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연령에 도달하면 오하구로를 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예를 보면 소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를 묘사한 장면에서

고풍스런 할머니의 교육으로 인해 오하구로도 아직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겐지가 손질을 해서 눈썹이 선명해지고 기품있게 아름다웠다.¹¹⁾

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오하구로와 눈썹 손질은 이른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성인 귀족여성이라면 당시 누구나 다 해야 할 의례였다. 무라사키노우에의 경우 어릴때부터 여승인 할머니 손에서 자라 오하구로나 눈썹손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겐지가 이 무라사키노우에를 데려와서 눈썹 손질 등을 하자 아름답게 되었다란 내용인데, 당시 눈썹 손질을 하고 오하구로를 해야 아름답다는 당시 미의식을 잘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재미있는 점은 헤이안시대에는 오하구로를 비롯해서 검은 이빨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었기 때문에,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는 심지어 충치로 검게 된 이빨조차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동궁의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빨이 약간 충치가 되어 입안이 검게 되어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넘치는 아름다움은, 여자로서 숭배하고 싶은 정도로 아름답다.¹²⁾

충치가 되어 검게 된 이빨까지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하구로가 일반적인 풍습이 되어 검은 이빨이 아름답다는 미의식이 완전히 정착된 시대가 아니라면 불가능

10)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71

11)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1』 「末摘花」 小学館 p.305

12)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2』 「賢木」 小学館 p.116

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소설이 쓰인 헤이안 시대에는 오하구로가 완전히 정착되었고 또한 검은 이빨이 아름답다는 미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 『우쓰호모노가타리(うつほ物語)』에 보면 황녀인 아테미야(あて宮)가 동궁에게 시집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 결혼 준비로 4가지 상자에 가득 갖가지 호화로운 물품을 넣고 노래를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세 번째 상자에는 거울과 다토가미(鬘紙), 오하구로의 염료를 비롯한 도구 일색, 네 번째 상자에는 향에 관련된 물건을 담았는데, 은제의 상자에 외국에서 들어온 조합된 향을 넣어서 침목(沈木)제의 밥상에 은제의 젓가락을 곁들여서,¹³⁾

이 장면을 보면 동궁에게 시집가기 위한 준비로 갖가지 훌륭한 물건들을 보내는 중에 오하구로를 하기 위한 염료와 도구 일색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번째 상자는 거울과 다토가미(鬘紙)와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화장도구를 넣은 상자라고 할 수 있다.

다토가미는 두꺼운 일본 종이에 감물이나 옷 등을 칠해서 접은 싸개를 말하며, 화장품이나 옷, 천 조각이나 여자의 잡다한 머리 관련 도구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했다.

『쓰쓰미추나곤모노가타리(堤中納言物語)』의 ‘하이즈미(はいずみ)’에 보면 여자가 화장 상자 속에 이 다토가미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다토가미 안에 눈썹 그리는 미묵(眉墨)을 넣어두고 있었다는 내용의 본문이 있다. 즉 거울, 다토가미 등은 화장도구의 일종이란 사실이 분명한 것이다.

즉 아테미야 황녀의 세 번째 상자가 화장도구를 넣은 상자란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자 속에 오하구로를 하기 위한 도구 일색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오하구로도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기 위한 화장의 일부로 인식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당시도 결혼을 할 때 시집가는 여자가 세간이나 화장품 등을 지참을 해서 갔었다. 그 속에 오하구로를 위한 염료와 도구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당시 오하구로가 여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풍습 중의 하나로 정착이 되어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오하구로가 당시 사람들의 화장문화 속에 얼마나 뿌리깊게 정착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의 예로 헤이안시대의 『쓰쓰미추나곤모노가타리(堤中納言物語)』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각각 구상이나 주제가 다른 10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곤충을 사랑하는 아가씨(虫めづる姫君)’란 소설에 보면 당시의 미의식이

13) 2001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うつほ物語2』 小学館 p.118

대단히 잘 나타나 있다. 당시 귀족아가씨들이 나비나 꽃을 사랑하고 눈썹을 밀고 이빨을 검게 물들여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이 아가씨는 외모뿐만이 아니고 내면의 진짜 모습을 탐구해야 한다며, 곤충, 특히 털 달린 곤충만 모아서 기르고, 당시의 화장법인 눈썹밀기나 이를 검게 물들이는 것도 일체 하지 않았다.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인간이란 것은 그저 자연스런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눈썹을 뽑는 일반적인 화장은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하구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번잡하고 불결해.”라면서 일체 이를 검게 물들이지 않는다. 웃으면 진주와 같은 이가 드러나며, 그저 곤충들만 아침저녁으로 귀여워한다.¹⁴⁾

웃으면 진주와 같은 치아가 드러난다면 현대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치아의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도 현대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연관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아가씨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별스런 습성을 지닌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대의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여자가 곤충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크게 이상할 바가 없지만,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풍습과 미의식에 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씨의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사물에 대한 분간이 전혀 안되는 아주 어린 아이라면 모를까, 일정 연령이 되어서 이를 검게 물들여야 하는데도 하얀 이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풍습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의 풍습을 따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미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란 점에서 대단히 별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소설 속에서 이 아가씨는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른, 대단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든 고쳐보려고 노력하던 부모조차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대단한 걱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곤충을 사랑하는 점은 기호의 문제이니 둘째치고라도, 당시의 일반적인 화장법을 따르지 않은 여자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외모에서부터 벌써 정상적이지 못한, 대단히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들에서 검은 이빨이 아름답고 흰 이빨은 아름답지 않다는 헤이안시대의 미의식을 잘 알 수 있으며, 이미 이 시대에 이런 미의식이 완전히 정착되어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문헌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헤이안 시대에는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지 않아도 오히려 오히려 했었다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풍습은 중세시대(1192-1602)에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헤이안 시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귀족 중심의 문화가 몰락하고 무사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사치스

14)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落窪物語・堤中納言物語』 小学館 p.408

럽고 화려함의 극치를 보였던 귀족 중심의 문화는 쇠퇴하게 된다. 그에 따라 헤이안 시대의 섬세하고 여성적인 문화에서 탈피하고, 미의식도 크게 변하여 남성적이고 무력적인 미를 중시되게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실적이고 검소와 실용을 강조하는 문화로 바뀌게 되며, 그런 사회분위기에 발맞추어 화장법에 있어서도 헤이안 시대의 여성적이고 사치스런 화장법이 쇠퇴하고, 비교적 검소하고 실용적인 화장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오하구로는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화장문화의 일부로 유지되었지만, 문헌에는 여자들의 오하구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활발하게 화장문화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문학작품 등도 군키노모가타리(軍記物語)같은 전쟁을 주제로 서사적으로 엮은 소설이 유행했던 것이다. 즉 헤이안 시대와 비교해서 문학작품에 여자들의 화장에 대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적어지게 된다.

중세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헤이안시대에는 오하구로가 귀족중심이었던, 무로마치(室町)시대(1392-1603)가 되면서 점차 서민들에게도 보급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서 더욱 의례화되어 간다. 그리고 중세 이전에도 상류계층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성인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를 검게 물들였었는데, 중세시대 역시 여자 뿐 아니라 남자들이 분을 바르고 이를 검게 물들였다는 기록을 당시의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 다이랴노 다다노리(平忠度)가 전사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분이신지 이름을 밝혀주세요.”라고 말하니, “나는 아군이다.”라고 말하기에 들어 올려진 갑옷 사이로 들여다보니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다. 아아, 아군에는 이를 검게 물들인 사람이 없는데. 헤이케(平家)의 귀족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¹⁵⁾

이 본문을 보면 헤이케의 귀족이나 황족들의 경우 남자도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헤이케의 무가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눈썹을 그리고 오하구로를 했으며, 반대로 겐지(源氏)씨의 무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이랴노 아쓰모리(平敦盛)가 임종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본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목을 치려고 갑옷을 들어 올려서 보니, 이제 나이 열여섯, 열일곱인데 얇게 화장을 하고 이빨을 검게 물들였다. 내 아들인 고지로(小次郎)의 나이 정도인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디에 칼을 찔러야 할 지 몰랐다.¹⁶⁾

15)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平家物語2』 「第九卷 忠度最期」 小学館, p.227

16)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平家物語2』 「第九卷 敦盛最期」 小学館, p.233

이 장면에서 보면 16, 7세 정도의 귀공자가 얇게 화장을 하고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헤이케의 귀공자 등을 중심으로 귀족남자들이 이를 검게 물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보인다. 그러나 이런 본문들을 통해 헤이케 일족의 귀족남자들이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 편 헤이케가 아닌 가문, 즉 다른 가문의 경우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다.

또한 『다이헤이키(太平記)』에도 보면 나이가 14,5세 정도 되는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용감하게 적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장면이 나온다. 이 소년의 용모를 묘사한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소년을 보니, 두꺼운 눈썹에 이를 검게 물들인 소년으로 참으로 품위있고 부지런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를 물리친다면 법사로서 수치인 것이다.¹⁷⁾

이처럼 중세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화장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더러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오히려 구로에 관해서는 여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본문을 고찰해 보았던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나 『다이헤이키(太平記)』 이외에도 『겐페조스이키(源平盛衰記)』나 『기케이키(義経記)』 등의 문헌들에서 무사들 사이에 오히려 구로의 화장법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시대 문헌에서 여성들의 오히려 구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거의 없지만, 확실한 건 중세시대에도 화장풍습 속에서 오히려 구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며, 당시의 미의식 속에서도 검은 이빨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대나 중세까지는 상류계층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8살이나 9살 경부터 성인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를 검게 물들이었는데, 에도(江戸)시대(1603-1868)가 되면 귀족들 이외의 남성들은 오히려 구로를 하지 않게 되며, 여성들의 경우에도 유녀나 기혼여성의 경우만 오히려 구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자리잡는다.

또한 에도시대가 되면 차츰 13세, 17세 등 오히려 구로를 시작하는 연령이 높아진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가 되면 결혼을 전후해서 이빨을 물들이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눈썹을 밀어서 기혼여성을 상징하는 화장으로 정착하게 된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20살 이상이 되면 이빨을 검게 물들이었다.¹⁸⁾

즉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외견상으로 보기만 해도, 그 여성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 여인이 눈썹을 밀고 이빨을 검게 물들이

17)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太平記1』 「第二卷 東坂本合戦の事」 小学館, p.111

18)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71

고 있으면 결혼을 했다는 의미로 기혼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결혼하면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아이를 출산하면 눈썹도 다 밀었다.

헤이안시대와 중세시대에는 남자들도 귀족계급과 무사계급에서는 이를 물들이기도 했으나, 에도시대가 되면서 오하구로는 상류계급의 여자와 조정에 출사하는 궁정귀족 남자들로 한정되고, 일반 서민은 여자만 행했다. 또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에도(江戸) 등 대도시에서는 유녀나 게이샤(芸者)들에게 한정된 풍습으로 정착되게 된다. 즉 에도시대가 되면서 오하구로는 그 사람의 나이나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 또 유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쉽고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오하구로를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빨만 보고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기혼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종합적인 판단수단이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결혼을 하면 이를 물들였다는 것은 정조관념에도 관계가 있다. 검게 이를 물들이면 다른 색으로 물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정조있는 여자란 표시로 이빨을 물들였고, 또한 다른 남자들도 검게 물들인 이를 보고 쉽게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혼자라는 표시로 이빨을 물들이고, 아이를 낳으면 눈썹을 민다고 해서 더 이상 여자로 아름답지 않게 보였던 표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당시는 오하구로를 하고 눈썹을 민 모습도 대단히 요염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다. 예를 들어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인 『고쇼쿠고닌온나(好色五人女)』란 작품에 보면, 15-6세 전후로 되어 보이는 아가씨를 묘사한 장면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 아가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인가 하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이를 검게 물들이고 눈썹은 밀었다. 얼굴은 둥근 편으로 보기가 좋고, 눈에는 영리한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귀도 귀엽게 붙어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통통하고, 피부는 곱고 희며, 기모노를 입은 옷맵시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멋있었다.¹⁹⁾

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젊지만 결혼한 미인의 아가씨를 묘사한 글인데, 여기서도 이가 검고 눈썹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하구로 자체가 아름다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당시 유녀나 게이샤들도 오하구로를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오하구로를 한 얼굴이 아름답다는 미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상 남자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야만 하는 유녀나 게이샤들이 오하구로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오하구로를 한 것이 흰 이빨보다 아름답다는 미의식은 헤이안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에도시대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자들에게는 오하구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하구로를 하

19)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井原西鶴1』 「好色五人女 卷三」 小学館, p.312

는 것이 일종의 풍속 의례처럼 자리 잡아서, 처음으로 오히구로를 하는 것을 ‘오히구로를 칠하는 의식(鐵漿付の式)’이라고 했다. ‘칠장(鐵漿)’은 오히구로의 다른 한자표기이다. 친척 중에 덕이 있는 여자가 ‘오히구로 부모(鐵漿親)’로 선택되어서 오히구로를 위한 도구 일체를 받아서 이빨을 검게 칠해주는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오히구로를 하는 것을 ‘첫 오히구로(初鐵漿)’라고 불렀으며, 7군데에서 오히구로수(お齒黒水)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일부만으로 완전히 정착한 오히구로는 많은 우키요에(浮世絵)의 그림에 남아있으며, 하이쿠(俳句), 센류(川柳) 등의 시조에 읊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아가씨 아깝기도 하구나 이빨이 검네
(良き娘 おしいことには 齒は黒し)²⁰⁾

이 시는 아름다운 아가씨인데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있는 걸 보니 결혼한 여자라서 유감스럽다는 감정을 노래한 센류이다. 또 다음과 같은 센류도 있다.

오히구로를 간장처럼 나눠 받고서
(おはぐろをしやうゆのようにあてがわれ)²¹⁾

이는 에도시대 처음으로 오히구로를 할 때 7군데에서 오히구로수(お齒黒水)를 받는 관습이 있었는데 간장같이 검은 색깔의 오히구로수를 나눠주는 것을 받는 모습을 노래한 시조이다. 오히구로수를 간장에 비유한 것이 재미있는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오히구로를 바르는 모습을 그린 다음과 같은 센류도 있다.

처음 이를 검게 물들이며 들여다보는 거울 속에 어머니 얼굴
(鐵漿初のかかみの奥に母の顔)²²⁾

이는 처음으로 오히구로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노래한 시조로, 생전 처음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이다. 딸이 처음으로 화장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걱정 반 기대 반인 복잡한 심경으로 딸을 지켜보게 된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잘 표현한 센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히구로가 여성들의 중요한 문화의 일부이고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오히구로에 관련된 수많은 시조와 그림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후 오히구로는 민간에서는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까지 존재했는데, 메이지

20) 浜田義一郎監修(1985) 『俳風柳多留』, 8-29番, 社会思想社

21) 浜田義一郎監修(1985) 『俳風柳多留』, 7-28番, 社会思想社

22) 浜田義一郎監修(1985) 『俳風柳多留』, 79-5番, 社会思想社

시대가 되면 외국과의 교섭이 활발해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색다른 화장문화에 놀라게 된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놀랐던 것이 오하구로와 눈썹을 미는 화장법으로, 기이하고 추한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메이지 유신 전후로 일본에서 활동한 프랑스인인 몽블랑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본문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눈썹을 밀어버리고 검은 수액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를 검게 물들인다는 사실이다. 이 풍습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 결혼식 다음 날이면 이 사람이 그때의 그 아가씨였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전날 밤만 해도 거뭇거뭇한 눈썹이 있어서 생생해 보였던 눈이 무디어져버리고 또 안구가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냥하게 웃으면 두 줄로 늘어선 진주를 연상시켰던 그 귀여운 입은 이제 추한 구멍에 지나지 않고 그 깊이는 눈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생각건대 이 풍습은 질투심이 많은 남편이 생각해 낸 것이리라.²³⁾

흰 이빨이 아름답다는 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검은 이빨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풍습일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런 풍습에 놀라며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관습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없앨 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이를 검게 물들이는 것이 결혼한 여자의 아름다움을 없앴으로써 다른 남자가 넘보지 않게 하기 위한 남편들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메이지 체재 일기(明治滞在日記)』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섬세한 얼굴에 아직 무척 어린 아가씨에게 내 눈이 멈췄다. 그 아가씨는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결혼한 부인이라는 표시다. 검게 물들인 그 무시무시한 이다.²⁴⁾

아직 무척 어린 아가씨라고 함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외국인들이 동양인을 볼 때 나이보다 어리게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무척 어린 아가씨라고 하는 걸로 봐서 결혼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책 내용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아가씨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험한 세상의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이를 검게 물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다른 남자들에게서 신변을 보호하려고 이를 검게 물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을 쓴 벨르소르라는 외국인도 검게 물들인 이빨을 무시무시하게 느끼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오하구로가 야만적인 풍습이라는 외국인들의 인식에 놀란 일본 측도 스스로 오하구로가 야만적인 문화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풍습을 없애야

23) C·몽블랑(1987) 「幕末ジャポン」 『モンブランの日本見聞記—フランス人の幕末明治観』, 新人物往来社, p.177

24) 벨르소르, 앙드레(1989) 『明治滞在日記』, 新人物往来社, p.98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1868년과 1870년에 걸쳐 정부가 황족이나 귀족들에 대해서도 오히구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발표하고, 또한 1873년에는 쇼켄(昭憲)황태후가 솔선하여 이를 검게 물들이거나 눈썹을 미는 것을 그만두어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천년 이상 계속되어 왔던 오히구로에 관련된 풍습은 이후 민간에서도 점차 쇠퇴해서 다이쇼(大正)시대(1912-1926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히구로란 화장법이 일본에서는 천년이상 계속된 오래된 전통인데다가, 에도시대에도 결혼을 하면 오히구로를 하고, 아이를 낳으면 눈썹을 미는 식의 화장법을 오랜 세월 지속해 온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 갑작스런 오히구로와 눈썹을 미는 화장법에 대한 금지령은 대단히 큰 변화였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까지 고수해온 전통이 완전히 반대의 형태로 바뀌어야 했을 때 그에 순응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검은 이가 아름답다는 사고방식에서 갑자기 흰 이빨이 미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니, 당시 여성들은 커다란 변화 앞에서 커다란 혼란을 느끼고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자연스런 화장이 아름답다는 미의식, 또 흰 이빨에 대한 미의식이 정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들도 그 기준에 따라가는 과정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오히구로를 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참으며 이를 물들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과정을 매일 행해야 했었는데, 그런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도 거부감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변천사를 거쳐서 일본도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오히구로라고 하는 오랜 전통의 화장풍속이 없어지고 서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검은 치아는 추하고 흰 치아가 아름답다는 미의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사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절대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국가별로 민족별로 특별히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미의식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별난 것들도 많다. 그 국가나 민족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왔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도 많다.

오히구로 역시 불과 백 몇십년전까지 일본에 존재했던 화장법이며 미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대의 일본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오히구로는 옷칠한 것처럼 광택이 나고 색깔이 검을수록 아름답다고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런 검게 물들인 치아를 실제로 보면 누구나 경악할망정 아름답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헤이안시대 『쓰쓰미추나곤모노가타리(堤中納言物語)』의 ‘하이즈미(はいずみ)’의 주인공처럼 흰 치아를 선호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거꾸로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시도조차 없다. 이제는 일본 속에서도 오히구로가 시대의 흐름 속에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 버

려서, 오하구로란 것도 지금은 완전히 과거의 풍습이며 문헌들 속에서나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 오하구로의 원료와 도구

이번 장에서는 오하구로의 원료와 방법, 도구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앞서 헤이안 시대에 쓰인 『우쓰호모노가타리(うつほ物語)』에 보면 황녀인 아테미야(あて宮)가 동궁에게 시집가면서 결혼 준비로 4가지 상자에 가득 갖가지 호화로운 물품을 넣고 노래를 보내는 장면을 고찰해 봤다. 본문에 동궁에게 시집가기 위한 준비로 갖가지 훌륭한 물건들을 보내는 중에 오하구로를 하기 위한 염료와 도구 일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이미 오하구로를 하기 위한 도구가 전체적으로 구색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나 서양, 일본 등 나라마다 거의 비슷한 풍습을 보이는데, 상류계급일수록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세간과 화장도구 등을 구색을 맞추어서 가져가는 풍습이 있다. 이는 여자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있어, 기본적인 세간이나 늘 몸에 지니는 물건이나 화장도구, 일상용품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새롭고 좋은 물건으로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원활하고 운택하게 하기 위한 부모들의 배려에서 나온 풍습일 것이다.

에도 시대에도 오하구로용 도구 일색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 도구들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하쓰네의 조도(初音の調度)’이다. 이는 에도시대 초기인 1639년 9월에 도쿠가와(徳川)가의 3대 장군인 이에미쓰(家光)의 장녀 지요히메(千代姫)가 만 2세 6개월의 나이로 미쓰토모(光友)에게 시집갈 때 지참해 갔던 세간들을 말한다. 조도(調度)란 것은 우리말로 세간 살림을 말하는 것인데, 하쓰네의 조도라는 것은 지요히메가 가져간 혼례용 세간 전부를 총칭하는 말이다. 전부 마키에(蒔絵)기법²⁵⁾으로 제작되어 있어 대단히 호화롭다.

이름을 하쓰네(初音)로 붙인 것은 헤이안시대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하쓰네(初音)’란 이름의 장 속에 다음과 같은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별한 채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만, 찌꼬리가 낳아주신 생모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지요.

(年月をまつにひかれて経る人にけふ鶯の初音きかせよ)²⁶⁾

25) 옷칠을 한 위에 금·은의 가루나 색 가루를 뿌려, 기물의 표면에 무늬를 나타내는 일본 특유의 칠공예.

당시 연중행사에는 1월의 ‘네노히(子の日)’에 작은 소나무를 뽑아서 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속에서 겐지가 방문한 날이 우연히도 네노히와 새해인 1월 1일이 겹친 특별히 경사스런 날이었다. ‘하쓰네(初音)’란 길하고 상스러운 것을 뜻하는 말이라서 혼례도구를 장식하는 데 주제로 쓰이기에 적합했던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이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노래의 글자를 그림 속에 보일 듯 말 듯 금은의 문자로 새겨놓았다. 이 하쓰네의 조도는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이래 대대로 황실과 장군, 다이묘(大名)등의 세간을 제작해 왔던 유명한 마키에의 장인인 초주(長重)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에 임한 것이다.

이 하쓰네의 조도 속에는 선반과 문방구, 화장도구, 향에 관련된 도구 일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화장도구에 여러 가지 오히구로용 도구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미미다라이(耳盥)라고 해서 좌우에 귀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대야가 있다. 미미다라이는 주로 칠기(漆器)로 되어 있었으며, 이를 검게 물들일 때 입을 가시는 데 사용했다. 또 와타시가네(渡し金)라는 대야 위에 걸쳐 놓고 이를 검게 물들이는 데 쓰는 도구를 엷는 동판과 오히구로용 그릇(鉄漿碗) 등이 남아있다.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시대에 이르기까지 화장의 가장 기본적인이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오히구로는 그 도구 자체가 생활의 필수품이었으며, 그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중요한 의례에는 도구 일체를 준비해 가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이다. 신분과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의 가격이나 질의 차이는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구로가 여성의 생활 속에 차지했던 중요한 역할은 신분에 상관없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헤이안 시대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는 접시나 붓, 단지 등이 있다. ‘오히구로 접시(齒黒皿)’는 오히구로를 칠할 때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받는 접시를 말한다. 또 ‘오히구로 단지(齒黒壺)’는 오히구로를 하기 위한 원료인 오히구로수(お齒黒水 또는 鉄漿水)를 만들기 위한 단지를 말하며, ‘오히구로 붓(齒黒筆)’이란 오히구로를 칠할 때 사용한 붓을 말한다. 또 오배자분을 넣어두기 위한 상자도 오히구로용 도구의 일종으로 옛날부터 사용되었다. 이런 도구들에 더해 에도시대에는 오히구로용 도구 일색이 갖추어져 있었다.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오히구로 단지와 오히구로 접시, 오히구로용 붓, 오배자분을 넣는 상자 등에 더해 미미다라이, 와타시가네, 오히구로용 그릇, 오히구로용 컵, 입을 행구어 내기 위한 그릇 등이 이에 속한다.²⁷⁾

이번에는 오히구로의 원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오히구로의 성분은 현대에 사용되는 검은 잉크와 비슷한 것인데, 잉크라는 것 자체가 필기나 인쇄 등에 사용하는 유색의

26) 1997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3』 小学館 p.46

27)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90) 『日本の化粧 -道具と心模様-』, ポーラ文化研究所, p.68

액체로 그 시초가 유연(油煙) 또는 목탄을 원료로 한 탄소덩어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에 물들여서 검게 만드는 것이다.

오하구로를 하고 난 치아의 색에 대해 노래한 당시의 셴류가 있다.

입술은 산호수 이빨에는 감청색의 이슬
(唇は珊瑚樹齒には瑠璃の露)²⁸⁾

입술은 산호수 같은 핑크색이고 치아는 짙은 감청색이라는 내용의 노래로, 색의 대비가 아름다운 작품이다. 여기서 검은 치아는 유리(瑠璃)색, 즉 자색을 띤 짙은 청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검정이라고 해도 광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은 색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인지, 아니면 당시 유행했던 문학적인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 오하구로를 한 치아를 이렇게 유리(瑠璃)색, 즉 감청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셴류나 문헌상의 표현이 이 외에도 여럿 보이는 것으로 봐서 당시는 오하구로를 한 치아를 짙은 감청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치아를 검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오하구로의 원료로는 우선 오배자분(五倍子粉)이 있다. 오배자(五倍子)는 율나무과의 식물인 붉나무에 생기는 벌레혹이다. 이 오배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천을 물들이는데 아주 훌륭한 염료로 쓰이기도 한다. 오배자는 탄닌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염색재료로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오배자분은 붉나무의 어린 잎이나 어린 싹에 오배자면충이 상처를 내서 생기는 벌레혹을 갈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하구로수(お歯黒水 또는 鉄漿水)는 단지 안에 식초와 쌀뜨물, 술과 차를 우린 물 등을 넣고, 녹슨 못이나 부러진 바늘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 용액이 초산 제 1철인 수용액이 되고, 그것을 오하구로 단지에 넣어서 보관하여 오하구로수가 되는 것이다.²⁹⁾ 오하구로가 ‘철장(鉄漿)’으로 표기되는 이유가 오하구로수(鉄漿水)와 오배자분을 치아에 교대로 바르는 것으로 치아를 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오하구로수는 집에서 스스로 만들었지만 에도시대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점에서도 팔리기도 했다.

또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오하구로의 재료도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서, 철단(鉄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멜란테라이트의 가루를 오배자분에 섞은 상품이 만들어졌다. 철단은 쇠에 녹이 슬지 않도록 바르는 누런빛을 띤 붉은 도료로 삼가(三価) 산화철이 주성분이므로, 오하구로의 원료의 성분과 같다. 이는 비젠(備前)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배송되었는데, 가루를 물에 풀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오하구로의 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급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이나 막부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주로 취급했다.³⁰⁾

28) 浜田義一郎監修(1985) 『俳風柳多留』, 6-14番, 社会思想社

29)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p.41

30)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p.41

오하구로는 대단히 악취를 풍겼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매일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물들여야만 했다. 또 아주 맛이 독특했기 때문에 물들인 후에는 바로 입을 헹구어내야만 했다. 오하구로의 맛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도시대의 센류가 있다.

오하구로의 맛을 아내에게 물어보니 신 맛이라고 한다
(鉄漿初のかかみの奥に母の顔)³¹⁾

오하구로를 하지 않는 남편으로서 어떤 맛인지 궁금할 것이고, 또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맛이 어떤지 아내에게 물어보았을 것이다. 아내는 이를 신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른 에도시대 문헌에서는 쓴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기술도 더러 보이므로, 한 마디로 딱 잘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맛은 아닌 듯하다. 하여간 향기롭고 달콤한 맛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오하구로가 유지된 이유는 충치나 잇몸 염증 예방 등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하구로수에 들어 있는 초산 제 1철 용액이 치아의 인산칼슘을 강화시키고, 오배자분의 탄닌은 치아의 단백질에 수렴(収斂)작용을 해서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둘이 혼합된 탄닌산 제 2철용액은 치아의 표면을 감싸서 이를 보호하고 결국 그것이 충치예방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³²⁾

에도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미용서인 『도시 풍속 화장전(都風俗化粧伝)』에 보면 ‘오하구로를 바르는 전(鉄漿をつける伝)’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오하구로를 바르기 전에 뜯숯(불붙은 목탄이나 장작의 불을 꺼서 만든 숯으로 불이 잘 붙는다고 함)으로 이를 조심스럽게 갈고, 잘 닦아서 이미 이에 남아있던 오하구로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치아 사이의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 오하구로를 바르면 치아에 잘 스며들며 광택이 난다. 또한 더 광택이 나도록 하려면 오하구로를 바른 위에 연지를 덧바르면 광택이 좋다.³³⁾

이처럼 오하구로를 검게 잘 스며들고 광택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아에 남아있는 오하구로나 각종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깨끗한 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하구로를 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이를 만드는 작업이 충치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하구로를 하기 전의 여들과 남자들의 경우 치아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었던 것인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오하구로를 하지 않은 여자와 남자들의 경우는 흰 치아, 청결한

31) 浜田義一郎監修(1985) 『俳風柳多留』, 6-14番, 社会思想社

32)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90) 『日本の化粧一道具と心模様-』, ポーラ文化研究所, p.76

33)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145

치아가 요구되었다. 이렇게 청결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현재의 칫솔에 해당하는 것은 나뭇가지 끝을 두드려 부수어서 칫솔의 솔처럼 만든 이쑤시개와 같은 것이었다. 이를 ‘후사요지(房楊枝)’라고 했다. 이런 방식의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칫솔은 헤이안시대에 이미 시작되어 중세시대를 거쳐 에도시대에는 일반서민들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어 전성기를 이룬다. 이 후사요지는 메이지 시대 초기 무렵까지 사용되다가 서양문물의 전래로 점차 현대의 칫솔과 같은 형태의 도구로 변화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치약과 같은 것도 에도시대에는 시판되고 있었다고 하며, 헤이안 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방법인 소금으로 치아를 닦는 것도 에도시대에 여전히 행해졌다. 1800년 전후해서는 에도시대의 유명한 문필가나 우키요에의 화가들이 현재의 치약과 같은 치아 연마제를 선전하는 선전문이 많이 보이게 되었다. 『우키요부로(浮世風呂)』 등의 작품을 쓴 작가이자 우키요에 화가인 시키테 산바(式亭三馬)를 비롯해서, 『난소사토미하켄덴(南総里見八犬伝)』 등으로 유명한 작가 교쿠테 바킨(滝沢馬琴) 등이 자기가 쓴 책 속에 ‘치아 연마제(齒磨劑)’의 효능과 선전을 했던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4. 결론

이상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오하구로라고 하는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독특한 풍습은 중국이나 한국, 기타 나라들에서는 보기 힘든 일본의 독특한 화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화장법은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시작되어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되어 행해지던 풍습이었다.

이런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시작되어 헤이안시대에는 이미 이 오하구로의 풍습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헤이안시대에는 서민보다는 귀족이 중심이 되어 유행했었고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분을 바르고 이를 검게 물들이는 화장을 했었다. 무로마치시대에는 점차 서민들에게도 보급이 되며 더욱 의례화되어 가게 된다. 중세 이전에도 상류계층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성인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를 검게 물들였었는데, 중세시대 역시 여자 뿐 아니라 남자들이 분을 바르고 이를 검게 물들였다는 기록을 당시의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다.

고대나 중세까지는 상류계층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8살 전후로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이를 검게 물들였었는데, 에도시대가 되면서 귀족들 이외의 남성들은 오하구로를 하지 않게 되며, 여성들의 경우에도 유녀나 기혼여성의 경우만 오하구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자리잡는다. 또한 에도시대가 되면 차츰 13세, 17세 등 오하구로를 시작하는 연령이 높아진다.

에도시대가 되면서 오하구로는 상류계급의 여자와 조정에 출사하는 궁정귀족 남자들로 한

정되고, 일반 서민은 여자만 행했다. 또 교토, 오사카, 에도 등 대도시에서는 유녀나 게이샤(芸者)들에게 한정된 풍습으로 정착되게 된다. 즉 에도시대가 되면서 오히구로는 그 사람의 나이나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 또 유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쉽고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구로가 여성의 화장법으로 정착됨으로서 검은 이빨이 아름답다는 독특한 미의식도 여기에 동반되어 일본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사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사실은 일본의 각 시대를 거쳐 유명한 고전의 문헌들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에도시대에는 우키요에 등의 그림에도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오히구로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오히구로의 원료로는 오배자분이 있으며, 오히구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안에 식초와 쌀뜨물, 술과 차를 우린 물 등을 넣고, 녹슨 못이나 부러진 바늘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오히구로수와 오배자분을 치아에 그대로 바르는 것으로 치아를 검게 만들 수 있었다.

이후 오히구로는 민간에서는 메이지시대까지 존재했는데, 메이지 시대가 되어 외국과의 교섭이 활발해지면서 오히구로가 야만적인 풍습이라는 외국인들의 인식에 놀란 일본 정부가 금지령을 발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천년 이상 계속되어 왔던 오히구로에 관련된 풍습은 이후 민간에서도 점차 쇠퇴해서 다이쇼시대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변천사를 거쳐서 오히구로라고 하는 오랜 전통의 화장풍속이 없어지게 되고, 검은 치아는 추하고 흰 치아가 아름답다는 미의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오히구로는 시대극이나 박물관, 문헌이나 남아있는 옛 유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천 년 이상을 이어져 왔던 풍습의 자취는 오랜 세월을 걸쳐 문헌과 그림, 도구들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参考文献】

- 村沢博人(2010) 『미인의 탄생 : 얼굴로 읽는 일본, 일본문화』, 너머북, p.47
-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2010) 『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39
- 빙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228
- 鈴木日出男외(2008) 『王朝文化辞典 — 万葉から江戸まで』, 朝倉書店, p.182
-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78
-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90) 『日本の化粧 — 道具と心模様-』, ポーラ文化研究所, p.200
-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6) 『モダン化粧史 — 粧いの80年』, ポーラ文化研究所, p.124
-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5) 『眉の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p.26
-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p.35
-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近代の女性美 -ハイカラモダン・化粧・髪型-』, ポーラ文化研究所, p.79
- 張競(2007) 「日中美人の文化史」 『美女とは何か』, 角川ソフィア文庫, p.37
-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 2』 小学館 p.117
-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落窪物語・堤中納言物語』 小学館 p.408
-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 p.67
-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小学館 p.297
-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井原西鶴1』 小学館 p.408
- 2001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うつほ物語 2』 小学館 p.118
-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平家物語 2』 小学館 p.256
-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太平記1』 小学館, p.111
- 2000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201
- 浜田義一郎監修(1985) 『俳風柳多留』, 社会思想社, p.21
- 吉沢靖(2008) 『江戸川柳の魅力』, 真珠書院, p.182
- 原三正(2005) 『「お歯黒」の研究』, 人間の科学新社, p.109
- 原田淑人(1987) 『古代人の化粧と装身具』, 刀水書房, p.28
- C・モンブラン(1987) 「幕末ジャポン」 『モンブランの日本見聞記—フランス人の幕末明治観』, 新人物往来社, p.177
- ベルソール, 앙드레(1989) 『明治滞在日記』, 新人物往来社, p.98
-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145
- 陶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講談社, p.139
- 渡辺信一郎(2002) 『江戸の化粧 — 川柳で知る女の文化』, 平凡社, p.28
- 平松隆円(2009) 『化粧にみる日本文化—だれのためによそおうのか?』, 水曜社, p.129
- 村沢博人(2007) 『顔の文化誌』, 講談社, p.198

- 樋口清之(1982) 『化粧の文化史』, 国際商業出版, p.46
日本風俗史学会・編(197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289
石上堅(1983) 『日本民俗大辞典』, 桜楓社, p.356
桜井徳太郎(1998) 『民間信仰辞典』, 東京堂出版, p.312
村田孝子(2007) 『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 化粧と髪型』, 青幻舎, p.79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鬚髮文化)의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No.1
이행화/ 박옥련(2010)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Vol.29
김민경(2007) ‘高句麗 時代와 同時代 日本의 化粧문화와 髮形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Vol.2 No.3
이연희/ 류광록(2004) ‘화장문화 고찰 [1] -화장의 기원과 고대 한국,중국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0 No.4
안현순/ 고정민(2010) ‘에도(江戸)시대 여성의 화장법과 두발양식 고찰’ 한국디자인포럼 Vol.29
진형여/ 김희정(2009) ‘조선 전기의 메이크업과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메이크업 비교’ 한국인체예술학회지, Vol.10 No.4

要 旨

お歯黒とは白い歯が美しいと思われている現代の美意識とは反対の、歯を黒く染めてそれを美しいものとする日本の伝統的な風習である。このようなお歯黒は中国とか韓国では流行ったことのない日本独特の化粧の方法である。

お歯黒は日本では古代からはじまって明治時代の初期まで日常生活の中に完全に定着して行われていたが、このような風習がいつから始まったのか正確には知られていない。ただ日本では平安時代頃には日常に完全に定着していたことが様々な文献から確認できる。平安時代には貴族を中心に、女だけではなく男も歯を黒く染めていた。さらに、平安時代からは女性の重要な嫁入り道具の一つとして定着して、江戸時代までこのような風習が続くようになる。平安時代までは貴族が中心であったが、室町時代からはだんだん庶民の間でも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江戸時代になると、貴族以外の男はお歯黒をしなくなり、女の場合も結婚した女性と大都市の遊女などがお歯黒をつけるようになった。また、前の時代までは8歳前後にお歯黒をつけていたが、江戸時代からはだんだん13歳、17歳とお歯黒を始める年齢が高くなっていく。

以後お歯黒は民間では明治時代まで見られるが、明治時代になって外国との交渉が活発になるにつけて外国人の目からお歯黒が野蛮な風習であるという認識があった。そのような認識に驚いた日本の政府がお歯黒の禁止令を出して、以後だんだん民間でもお歯黒をしなくなり、大正時代にはお歯黒もほぼ完全になくなってしまった。

日本ではこのような過程を経てお歯黒という千年以上も続いてきた長い伝統の風習がなくなり、西洋と同じように黒い歯は醜く、白い歯が美しいという美意識に完全に変わ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お歯黒、鉄漿、おはぐろ、化粧、歯、日本の風習

투 고 : 2012. 2. 29

1차 심사 : 2012. 3. 17

2차 심사 : 2012. 4. 7

